World Mission Herald

월드미션 헤럴드 2005

월드미션 헤럴드 2005
World Mission Herald

목차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이근철
인 쇄 Nok Doo Printing
발행일 2005 년 6 월 4 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213) 385-2322 (Phone), (213) 385-2332 (Fax)
Website: www.wmu.edu; e-mail: info@wmu.edu

시 이홍주 (M.Div.)

사과꽃 향기

조용한 저녁지나
아홉시 이십 분
아내는 이제야 앞치마
젖은 손 닦는다

시월은 아직도
여름이 좋다고 붙잡고 있는데
햇볕에 몽그라진 사과 몇알
시월의 밤바람
멀어져가는 사과 향기

앉은 님 손목 따뜻해
시월의 밤바람 함께 맞으려
뒷뜰로 나간다.

우리네 마음은
시월을 넘어 마흔하고도
몇날을 더 내다보는데
시월의 밤바람은 가슴을 저민다

시월의 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그 음성에
가슴을 기대어 봅니다.

(시편 19편 2절에서 3절)

간증 이귀란 (B.A.)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내게는 어린시절에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다. 나의 주일학교 시작은 초등학교 2 학년 때 부터이다. 학교생활보다 교회생활이 더 재미있고 활력이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은 어렵기만 하고 도저히 개인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대상들이었다면, 교회 선생님들은 언제나 따뜻했고,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그런 분들 이었다. 다가가기도 편했고, 나를 안아 주었고, 사랑을 표현해 주었다. 걱정을 해 주었고, 꿈을 가지게 했고, 비젼을 갖게 했다.

나는 말도 못하는 말썽꾸러기에 문제아로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다.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면 불을 끄고 도망갔고, 의자 위를 뛰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갈줄도 모르고 말괄량이 짓을 했다. 전도사님 께도 무서운줄 모르고 대들고, 학교에서라면 있을 수도 없는 행동들을 일삼았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말썽을 부리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쫓아 다니며 말리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좋았다. 아마도 관심을 끌기 위한 나의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의 원리에서 쓰여진 다음 글이 내게 지난 날을 기억나게 했다. "그러나 오늘 벽을 기어오르는 아이가 내일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나 혹은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

오래 기억되어지는 선생님 몇 분이 계신다. 초등학교 5 학년 때, 바로 그런 나를 늘 쫓아 다니시며 "귀란아 순종이 첫째니라"를 외치시던 분이다. 성경 공부중에 뛰쳐 나간 나를 쫓아 나오시다가 계단에서 굴러 기브스를 하고 다니시면서도 나를 미워 하신 적이 없으신 분. 이해 할 수 는 없었지만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 계신다.

또 한 분은 성가대 선생님이다. 주일학교 내내 성가대를 하면서 맛있는걸 제일 많이 사주시고, 우리들과 늘 제기도 차고 공놀이를 하면서 함께 한 선생님이다. 학생들 한명한명에게 늘 전화 해 주시고, 학생들과 하나가 되었던 선생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지금의 아이들과도 하나가 되어 지켜주신다는 얘길 후배들로 부터 듣는다. 그분은 내게 이런 교사가 되어야지 하는 모델로 소망을 갖게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3 살 위 언니다. 대학부때 우리 조장이었다. 언니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말씨도 예뻤고, 항상 좋은 말씨, 아름다운 말씨를 쓰는 늘 본이 되고, 언행이 일치하는 정말 닮고 싶은 바로 나의 신앙의 모델이었다. 옆에 있는 것 만으로도 순결하고 거룩함들이 자연히 전해지는 그런 흉내낼 수 없는 단아함이 나로 하여금 그 언니를 흉내내게까지 했다.

그리고 바로 대학부때 목사님이 또 한분이다. 한참 사회생활을 하며 갈등하던 신앙으로 교회만 가면 울었다. 매주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목사님의 인자하신 모습, 부드럽고, 그러면 서도 강한 말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는 각 개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부여해 주셨다. 무엇보다 성령체험을 했을때 유별난 덕에 특별한 경험을 하며 혼란에 빠진 나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켜주셨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동안 간간이 이메일로 연락이 닿았지만, 16 년 만에 내가 미국 나오면서는 드디어 찾아 뵐 수 있었다.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가며 여전히 어린시절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2 살 위인 언니가 눈에 들어왔다. 신앙안에서의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언니의 신앙색깔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청년부에 올라가 첫 4 월 5 일 식목일에 MT 를 갔다. 청년부 목사님 이하 모든 회원들이 다들 이상한 신에 사로 잡힌 사람들 처럼 보였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놀라워서 도대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의 첫 돌연변이가 되기도 했다. 노래방 엠프를 빌려다가 대중가요도 부르고 복음송도 불러가며 춤까지 곁들인다. 타우너의 해드라이트가 조명역할을 한다. 이건 과히 정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란의 현장이었다. 나는 이내 신앙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이런 것으로 시험을 당하기엔 아직까지는 견딜만 했다.

그런데 청년부에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던 소위 말하는 날날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게 아닌가! 얼굴도 보기 싫었던 술고래들에 골초들이었는데, 이들이 교회로 하나둘씩 모여든다? 무엇때문일까? 때론 약간의 술기운까지 있는 형제들이 술냄새를 풍기면서도 자리를 채웠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이다. 술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나는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한번도 그들이 되어 보지 않았기에. 하지만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때는 같이 울었다.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같은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신앙의 자유함들을 흉내내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남다른 경험이 되었고, 또 내게도 선교로의 첫 출발을 내딛게 한 목사님이셨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목사님의 도전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양떼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신다. 양떼 중심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양으로서 목자를 찾아 새로운 도전과 신앙의 결정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늘 찾게 되는 분이다.

선교지에서 2 년이 지나 첫 휴가를 받아 3 명의 선배들과 함께 목사님을 찾았다. 2 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언니는 가봉사람과 결혼해 가봉에서 살고 있다. 그때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셨다. 한 오빠는 인도선교를 놓고 결혼 전부터 부인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한 오빠는 교육학을 공부해 북한의 문이 열리면 교사선교사로서 가장 먼저 들어 가기를 꿈꾸고있었다. 그리고 가봉으로 간 언니는 가봉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봉에 선교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식년때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그런 비전들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다. 특별히 내게는 반드시 공부를 하도록 권면하셨고, 앞으로 선교사로서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자신을 개발해 나갈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술취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매운다고 말씀하셔서 모두가 웃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안다. 우리 청년부를

끝으로 새로 시작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지금은 몇 배로 성장했고, 용산 한 복판에서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미국에 나오기 전에 다시 한 선배와 목사님을 찾아 뵈었다. 교육학을 하고자 했던 오빠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연대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도로 가기 위해 기도하던 오빠도 부인이 같이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 4 년전에 나누었던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안에서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느낀다.

그리고 가봉으로 간 언니가 청년부를 마치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다. 95 년도 이 목사님과 함께 2 번째 해외선교여행을 필리핀으로 갔다 오면서 처음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어서 별도의 성경공부 모임을 후배들 4 명과 나, 그리고 조장으로 이 언니가 우리를 섬겼다. 우리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며 신앙의 절정기를 이루어갔다. 언니의 소개로 처음으로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고, 나의 선교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언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 할 수 없는 도전정신을 심어 주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보여 주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후배들과 제대로 교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벽도 깨게 되었고, 처음으로 금식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를 제자화 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그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간 나도 분명히 언니처럼 그렇게 제자양육 모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니가 우리에게 했던 것을 조목조목 기억하며 섬길 것이다.

직장생활을 했던 우리는 언니 회사가 모임 장소였다.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항상 푸짐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고, 때가되면 선물까지, 우리를 섬기는 모습에 빈틈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언니의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언니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어찌 이해할 수 있으랴!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유없는 사랑 표현은 한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아니 우리 모두를 바꾸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내가 선교지로 가기 위해 처음으로 모금을 할때다. 자신의 월급 절반 50 만원을 씨앗으로 주었다. 잊을 수 없는 헌신 이었다. 언제나 언니는 우리들이 재정으로 어려워 할때면 자신의 재정을 털어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나누는 삶을 나는 그때 배웠던것 같다. 지금 이 후배들중 한명은 지금까지 꾸준한 후원자로 있고, 2 명은 간간이라도 후원을 하는 후원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부족하고, 모일때 마다 엉엉 울었던 내가, 도저히 이렇게까지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나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들 한다.

선교지에 도착한 첫 날. 나는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 27 년 동안 나를 기다려 오신 주님이 보였다.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가슴아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너무도 긴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조이시며 이제나 저제나 내가 정신을 차릴까 기다리셨을까? 내가 얼마나 얄밉고 손을 놓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셨을까? 한번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 선교지에 막 도착해 있는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돌아보니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 언제나 내 옆에 훌륭한 교사들을 두시고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만들어 준 그 분들 처럼 내가 이들에게 그런 존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한번도 교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고,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해본적이 없던 나는 주일학교 시절의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가며 주일학교를 섬겼고, 선배들이 했던 것 처럼, 목사님이 해 주셨던 것 처럼, 그렇게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맺어갔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을 받을 때의 느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평가하기를 참 잘했다고 점수를 주었다. 제 5 장 마음의 원리에서 “학생들에게 당신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과 지난 수년 동안 고민해 온 것을 알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먼 길을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한 경험들과 고통스런 실패를 통해 당신에게 가르치신 것, 즉 오늘의 당신이 되게 하신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구상하라.” 내가 앞으로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내가 나 된것을 분명히 전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나는 깨지고 또 깨진다. 울어도 울어도 부족하기만 하다.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한 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아는게 없다는 것이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 수록 내가 모르는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스러움을 느낀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설교말씀은 나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찌른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현지인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말씀 속에 비추이는 나는 겉으로는 사랑했는지 모르겠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에 회개할 수 밖에 없었다. 교인 한 사람에 문제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도 많은 문제들로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하루에 7 시간까지도 그 무더위 속에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교제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내가 안식년으로 나올 때 쯤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잔뜩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내게 다 쏟아 놓으러 오는 사람들로만 보였기에 한 없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점점 자격미달이 되어 갔다. 지금 나는 그 일을 놓고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다. 내게 보내 주신 영혼들을 나는 무서워 피하고 있었다.

그곳에선 미처 깨닫지 못했다.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야 그 문제들이 보인다. 잘 한줄만 알고 있었는데, 잘 견디고 자리를 지킨것이 대견하다고 생각하기만 했는데. 나는 형편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자부한 것이 있었다. 제대로 다리역할을 했다고. 교회와 현지인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왔다고 자부하며 기특해 했다. 나와 우리 태권도 사범을 통해서 목자의 역할은 제대로 못 했지만, 그래도 교제권을 형성해 놓은 것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고 믿으며 감사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 사범이 한 일이었다. 나는 그저 그 옆에 서 있었던것 뿐이었다.

음식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들에게 그 친구는 꼭 맛을 그들 앞에서 보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선지로 국물을 내고 선지덩어리가 들어있는 국수는 도저히 나는 맛을 볼 수 없는

음식이었다. 그렇게 나는 그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서운해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맛보는 순간 바로 화장실로 뛰어야 할 것을 알았기에 방법이 없었다. 그런것 하나까지 이제는 내가 잘하고 왔다고, 의기양양해 했던 것을 아주 부끄럽게 기억하게 하셨다. 지금도 전화해서 언제오냐고 빨리 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

얼마전 수업 시간에 나는 갑작스레 울고야 말았다. 수업 시간에 찾은 고린도전서 8 장 2 절 말씀이 나를 울렸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공부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 줄은 몰랐다. 너무도 정확하게 내게 말씀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깊은 찔림으로 참을 수가 없었다. 자꾸만 흐르는 눈물은 내게 회개를 촉구했다. 음악실로 들어가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셨다. 나의 교만함.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의 자리에 올려 놓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다. 아주 작은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는 그들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피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보게 하신다. 내가 모르는 것에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아주 많이 구겨진 나의 자아상이 있음을 보여 주셨다. 그 주름들을 하나씩 펴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누굴 돕겠다고 나갔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까?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말이다. 내가 먼저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나를 보내시는 그 곳에서 내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을 알았기에 더욱 더 온전해 지길 위해서 노력한다.

주님이 주시는 이 훈련의 시간이 내겐 너무도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통해 내게 아주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가르쳐 주신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모든 과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 수록 흥미롭고 기대가 된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 지길 소원한다. 그 동안 내 곁에 두셨던 그 선생님들 처럼 우리 현지인들에게도 내가 그런 유익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울 수 있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 수록 내게서 나오는 것은 더욱 강한 헌신이다. 주님께 드릴게 나 자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에…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서 가능해 지는 것이리라. 진정한 가르침을 위해, 진정한 제자화를 위해 내가 먼저 진정한 변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겠다.

논문 부루스정 (M.Div.)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에 미친 영향 (요약)

1. 서론(序論)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찬란히 비치는 것처럼 9 세기동안 캄캄한 암흑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복음의 횃불이 개혁자들의 손에 높이 들려 밝게 비추어졌다. 종교개혁의 광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위에 환히 비추어 진 것이다.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宗教改革)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중세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전승(tradition)에다 가두어 버린 것이라면, 종교개혁은 정확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聖經)안에다 교회의 전승을 재해석하고 삶의 유일의 법칙(法則)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중세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만 성경이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8:32)는 성경 말씀의 놀라운 위력을 깨달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고 진리를 수호(守護)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종교개혁이란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있다.

하나님과 자신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기를 힘쓰고 배워서 내 자신을 개혁하고, 현대를 사는 오늘의 정치나 사회개혁은 물론이고 교회개혁이 절실히 필요함을 바라보며 어느 때,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종교개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된다.

이 논문의 필요성은 과거의 사적(史的)인 고찰(考察)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봄으로써 잘못된 것에 대한 답습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나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사회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세속화 되어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에 따른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때이다.

중세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종교와 문화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는 민중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필연적일 수밖엔 없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개혁, 교회의 개혁, 나아가서는 국가와 지구촌이 하나님의 주권(主權) 사상으로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다.

저마다 성경을 들고 나오고 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기(動機)와 의도와 사상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구속사(救贖史)적인 해석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다 오히려 인간들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해석되어질 것이다.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다니다. 어쩌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이러한 때에 이 논문의 연구 동기는 개혁주의 노선의 반열에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그 속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동기의 부여가 되리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제 1 장에서는 서론을 다뤘고 본론인 제 2 장 제 1 부에서는 종교개혁사의 동기와 과정, 발단 등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과 배경과 사상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교개혁의 발단의 시발자(始發者)는 말틴 루터이기에 말틴 루터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제 2 장 제 2 부에서는 그 외에도 쯔빙글리와 부처가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했다. 제 2 장 제 3 부에서는 칼빈의 종교개혁과 인간 칼빈, 그리고 그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다.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종교개혁 발단은 1517 년 비텐부르크의 루터에 의해서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도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도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다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시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내용들과 사역들을 중심으로 한계점으로 한다. 또한 칼빈이 루터보다 20 년 뒤에 종교 개혁자로서 종교개혁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었음을 한계점으로 한 것을 밝힌다.

2. 독일 종교 개혁의 배경과 말틴 루터

16 세기 초엽 독일의 종교적, 경제적 상황은 여러 면에서 매우 위기였다. 교황의 과세(課稅)와 교직 임명에 대한 간섭은 일반적으로 압박감을 주었으며 교황청의 행정은 부패, 타락했다. 교직(教職)은 무가치한 상하 교직자들로 인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고, 상업도시는 교직의 납세 면제, 이익금지, 여러 교회절기, 걸식 장려등으로 인하여 침체 상태에 빠졌다. 수도원들은 그들이 소유한 많은 토지 때문에 귀족에게나 농민들에게 나쁘게 보여 여러 곳에서 개혁이 요청되었다. 농민들은 대체로 지방조직의 착취로 경제적 불안 상태에 있었다. 거기에다 불길처럼 일어나는 독일 인문주의의 지적(知的)발전과 일반적 종교 각성은 민중에게 깊은 공포심과 함께 구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게 했다. 이 시기야 말로 개혁을 부르짖을 위대한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할 때였다.

이 때에 말틴 루터(1483-1546)는 근자에 설립된 독일 대학계에서 별로 알려지지 못한 대학의 한 은둔(隱遁)교수로서, 1517 년 10 월 31 일 마침내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의 거보를 내디뎠다. 개혁의 창시자인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조직가나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동치 않는 신뢰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에서 확신 있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건전한 신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3. 비텐베르크와 말틴 루터

루터는 1517 년 10 월 30 일 대학 게시판으로 사용되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속죄권의 그릇됨을 반박하는 영원히 기념될 95 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였다. 95 개 조항의 항의문은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이며,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이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비록 루터의 사상이 모두 발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시 교회의 행위에 대한 개혁적인 원리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음을 확신했다. 추기경 비오는 루터에게 속죄권 판매에 관한 교황의 절대적인 권한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도록 명했다. 루터는 1518 년 11 월에 앞으로 있을 총회에 대하여 호소했으나 동정의 여지없이 교황 레오 X 세는 루터를 같은 달에 파문하고 말았다. 만약 루터가 용기가 대단했다고 한다면 그의 위험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정치적인 호전으로 말미암아 그는 황급한 정죄 처형을 모면하게 되었다.

1520 년 5 월에 발표한 그의 소책자 [선행론](On Good Works)에서 그는 "가장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어야 함을 정의한 다음, 일상생활적인 보통 직업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임을 확언하면서 "선한 사업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그리고 자선을 하는 것" 이라고만 좁게 국한하는 자들을 비난했다. 금욕주의(禁慾主義, Asceticism)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분야로서 자연스런 인간 생활이라고 입증한 것은 개신교 사상에 대한 루터의 가장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중세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의미 있게 이탈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종교개혁(宗教改革)에 뛰어든 요한 칼빈

칼빈의 친구로서 대학의 새 총장이 된 인문주의자 니콜라스 콥(Nicholas Cop)은 1533 년 만성절, 개학식에 즈음하여, 총장 훈시 시간에 대답하게도 일종의 8 복 설교를 했는바, 이 설교에서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에게서 영감을 받아 종교개혁의 귀중한 테마들, 특히 믿음으로 얻는 칭의(稱義)테마에 접근했다. 니콜라 콥의 개학 연설이 제시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제네바 개혁자가 그 연설문을 작성했는가 이다.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아직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칼빈이 콥의 강연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칼빈이 콥에게 협력을 했든 안했든 간에 그는 1533 년 적어도 에라무스적 쇄신주의(Reformisme)의 일원이었음이 틀림없다. 칼빈은 [시편주석](1557) 서문(序文)에서 "급작스런 회심" (subita conversio)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교황 체제의 미신" 에서부터 돌이키사 그의 마음을 "길들이시고 유순케 하였다" 는 것이다.

칼빈은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해 프랑스를 떠나 바젤로 도망했다. 그는 그곳에서 엄청난 노력의 댓가로 1 년도 채 안되어서 [기독교 강요](Institution of de La Religion Chritienne)를 썼고, 1536 년, 앞에 프랑스 국왕에게 드리는 변증적 서간문을 담아 출판했다. 그가 평생 수정 중보한 이 작품은 출판되면서부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탁월한 위치를 그에게 확고히 해주었다. 그후 1536 년 7 월 제네바에 도착했고 그러기가 무섭게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은 이곳에 남아 자기를 도와 종교개혁을 공고히 하자고 그를 독촉했던 것이다.

5.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종교개혁

칼빈을 제네바에 붙들어 둠으로서 파렐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을 보여줬다. 곧 그는 칼빈에게서 막 시작된 갱신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임을 발견한 것이다. 칼빈은 파렐과 함께 21 개 조항으로 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모든 제네바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 서명하게 하려했다. 제네바의 개혁된 교회에 치리적이고 교리적인 확고한 뼈대를 주려했던 이 노력은 강한 저항을 야기했다. 당국의 반발속에 칼빈과 파렐은 면직되고 제네바를 떠났다. 칼빈은 부쳐의 절박한 부름 속에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 년간 프랑스인들의 공동체를 책임졌다. 그리고 이곳에서[로마서 주석]이란 괄목할만한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는 동안, 제네바교회는 심각한 분쟁으로 시련을 겪었고 제네바당국은 칼빈을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6. 제네바에서의 신정정치(神政政治, Theocracy)
여러나라에서 박해를 받던 신교도들이 제네바로 몰려왔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으며 새로운 환경에 생소했다. 이렇게 제네바는 다른 도시에 비해 피난민의 입국이 자유로웠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정책이었다. 그것은 크리스챤들의 공동체로서의 제네바였다. 16 세기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바람직한 일이었다.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지배는 매우 실제적이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준엄하였다. 1554 년 2 월 2 일 그는 200 명의 의원들과 함께 "모든 증오와 낡은 사상을 버리고 종교개혁에 따라 살기"로 서약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모든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공공의 책임감을 의식하도록 시도하였다.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힘썼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로서의 제네바는, 장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다. 주인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며 장관이나 장로나 목사는 봉사자로서 충성을 다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7. 칼빈과 칼빈주의
칼빈의 죽음을 본 그의 제자 베자는 "그날 해가 질 때 하나님의 교회의 길잡이인,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하늘나라로 되돌아 갔습니다"라고 썼다. 4 세기가 지난 오늘에 칼빈이 방문한다면 오늘의 물질문명의 성공에 대해서 놀라움보다 비인간적이고 세속화된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 현실에 대해 칼빈처럼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종교자가 있었으면, 그이만큼 진실로 공부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그이처럼 솔직 담백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이처럼 교회의 연합사역을 할 예언자적인 일꾼이 있었으면 그리고 진실로 기독교사상에 열렬히 불타는 자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설교 김영준 (B.A.)

How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Exdus 13:17-14:31; Mark 1:15)

Jesus started his ministry by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saying, "The time has come.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Mark 1:15). Have you ever heard or thought about the Kingdom of God? Do you believe that you will receive the Kingdom of God? When do you expect that it will be come true? In Jesus' first preach, he declared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into the world through him already. And he invited people into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can be defined as the reign of God to His people. The Kingdom of God, also referred to in Scripture as The Kingdom of Heaven, is an everlasting kingdom which spans the whole universe and even beyond that. Although it is invisible to the human eye, God's Kingdom is more real and abiding than all the earthly kingdoms and empires that this world has ever known just as what Jesus said at his first speech. Certainly, the Kingdom will be given to God's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end of days. This is what God promised to His people through the Bible. But, we can experience the power from the Kingdom of God in our daily lives. We can live in the Kingdom of God even now!

Actually, this is what Jesus meant in his message. God wants us to receive the Kingdom of God so that we can live as His children even in this world. That's why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us for our atonement. Exodus 14:13-14 shows us how we can live in and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Moses answered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Here is the key to learn how we can live in or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That is "Depending on God." Then how can we depend on God?

We have to repent our sin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in advance.
We need to look into what Jesus said at his first message carefully. He said,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near." What's the repenting? The meaning of repent is completely turning our way 180 degree to the God. When we repent of our sin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us. God's mercy is given to us when we believe in Christ, the Son of God, and what he has done for us, that he died for us to save our life from sin and death and he rose again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world. We can not depend on God until we repent all of our sin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wholeheartedly so that we could get reconciled with God.

We need to know God personally.

Look at the text, Exodus 13:17-14:31. Did you find the difference between Moses and the rest of Israelite? That was the intimacy with God. Israelite, they saw and experienced the God's mighty hand through the Exodus by Moses. Even they were seeing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that God made for them when they came to know Egyptian's pursuit later. But, they didn't realize God's presence. They didn't believe in God that He would protect them from those Egyptians' attack. They knew who God was, but they didn't know God personally, because they have never met God personally. That's why they couldn't believe in God. But, Moses was different. He had met God personally before the event of Exodus in flames of fire from within a bush at the mountain, Horeb. (Exodus 3:1-4:17) And he became a true worshipper of God. He walked on his way with God all the time. Without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we can not trust in God with all of our heart. Then, how can we hav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How can we know God personally?

First of all, we have to ask God to help us understand more who God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He is our lovely heavenly Father. If we ask Him to help, He would help us with great joy. He never ignores us. He loves us. Secondly, we have to meet God in quiet time (QT) every day. Even Jesus met God in the early morning before he starts his day. Through the quiet time, we can feel God touch inside of us and as we read the Bible, He will give us insight to understand His Word and guide us for our daily life.

Conclusion

Isn't that amazing that God listen to us and willingly respond to our prayer?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is to live with God. That is the life of depending on God. By faith in God, Moses leaded Israelites out of the Egypt and split the Red sea to across of it. This is not a mere story but the testimony of practical life. God really wants us to live like Jesus and Moses right now. They were so powerful and vigorous at doing God's ministry. And also we can find there were so many people who lived their life experiencing the power of God and influencing all over the world for God around us.

We can experience abundant power of God in our daily life through sincere praying and having quiet time with God continuously. Now, in front of us, there lies a big river. We have two choices. One is just to go back to the initial place as just many people do over and over. They get disappointed when they meet problem in their life and give it up easily. They just live their life without any influencing power. The other is to depend on God, and split the water to across. They never get disappointed about any thing and change the situation into positive way with faith. They really change the world. We got to believe in God. He is alive. He is the only one we can put our trust in. His mercy is never ceased. He is our Father. When we depend on Him, He will give us strength to overcome everything that against us and He will protect us. When we depend on God, the things will be chan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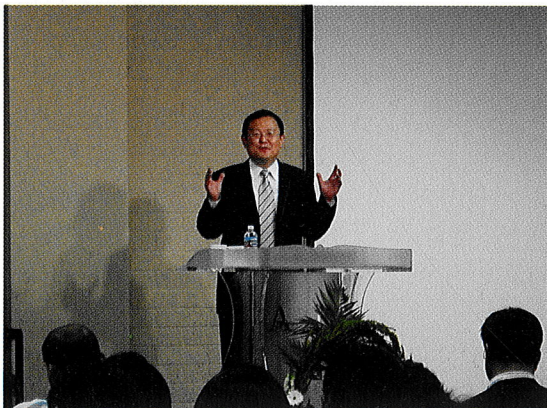
Let's trust in God. Then we are in the Kingdom of God already. My prayer is that all of us to live in the Kingdom of God experiencing the overflowing power of God so that we could change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God's purpose. Today, are you in trouble? Be glad! For it is the time to experience the power of God. May God be with you all!

소식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헌신예배

지난 3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동양선교교회에서 2005년도 월드미션대학교 헌신예배가 개최되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사역과 학교 후원 및 학생모집을 홍보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헌신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순서를 살펴보면, 본교 이귀란 학생의 간증과 학생 성가대의 합창이 있었으며, 이어서 박성근 목사님이 "비전의 산에 오르려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올해 신설된 음악학과 발표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멋진 연주를 선 보였다.

봄학기 학술세미나

지난 4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본당에서 제 2005년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신앙과 기독교 역사관" 이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 세미나의 강사로는 풀러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윤리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충현 선교교회 담임인 민종기 목사님이 초빙되었다. 민종기 목사님은 이날 강연에서 인간의 역사를 가로 지르는 구원의 역사를 크게 창조, 타락, 구속, 종말 네 가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있는 반응을 강조했다. 본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날 세미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 세미나

헌신예배

음악과 소식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윤임상 교수)에서는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남가주 교회음악가협회, 크리스천 헤럴드사의 후원 하에, 지난 4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월드미션대학교 본당에서 인천시립합창단 지휘자이며 서울영락교회 성가대 지휘자인 윤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특별 합창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윤학원 교수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한국 합창 총연합회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및 한국 합창지휘 아카데미 원장으로도 활동 중에 있다. 이날 강의 주제는 합창 소리 만들기 (제 1강의)와 합창해석 및 지휘법 (제 2강의)이었으며, 각 교회 지휘자 및 음악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또한 5월 27일에는 본교 강당에서 Piano Master Class 가 있었다. 이 시간에는 Susan Svrcek 교수와 윤 에스더 교수가 지도를 하였는데 Susan 교수는 예일대와 남가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윤에스더 교수는 Eastman School of Music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두 분다 Pasadena Conservatory of Music 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피아노 연주에 대한 수준 높은

학교 채플과 학생 사역 소식

지난 2005년 학생 채플시간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충실하고 내용 있는 예배가 진행되었다. 3월 15일에는 조이장애 선교센터 소장 김홍덕 목사님, 3월 29일에는 본교의 손진락 교수님, 4월 5일에는 본교를 졸업하고 캄 (CAM) 선교단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는 박재민 목사님, 4월 12일에는 충현선교교회의 민종기 목사님, 4월 19일에는 선한청지기교회의 송광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다. 5월 3일에는 학생사역을 위한 교수와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고 특히 이날 올해 졸업하는 이명옥 학우가 학생사역을 통하여 교회에서 소망부를 섬기면서 소명을 발견하고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체험한 경험을 나누어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끼쳤다.

음악과 소식

학교 채플

봄학기 유아 교육과 수료식

지난 5월 11일 본교 채플에서 2005년도 봄학기 유아교육과 수료식을 가졌다. 올 봄학기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 한학기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여 학생들간에 많은 정이 쌓여 수료식을 하면서 아쉬움을 나누었다. 이날 임성진 학감이 졸업생들에게 도전을 말씀을 주었다. 올해 유아교육과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선자, 김주영, 김현주, 김효진, 김희숙, 나윤자, 서승연, 서승완, 안보슬, 여영선, 이귀림, 이정순, 이정희, 조미숙, 한미정.

교수 직원 동정

본교 총장 임동선 박사님께서 미주 목회자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존경 받는 이민 사회의 기독교 지도자로 선출되어 본교의 학생과 관계자들이 큰 기쁨을 나누었다. 임성진 학감은 5월 23-26일까지 상호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호서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동안 본교 사무실에서 수고하던 프레스틴양이 사임하고 백혜영 자매님이 사무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인 우윤정 전도사님이 본교의 학무담당 사무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봄학기 설교대회

4월 26일 (화요일) 6시 30분에 본교 채플에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도 봄학기 설교대회가 열렸다. 설교주제는 자유선택으로 약 10분가량의 설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이기형 학우가 최우수상을, 김덕호 학우와 조경진 학우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 수여되었다.

유아교육과 수료식

교수 직원

학교 인가 관련 소식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2004년에 ABHE에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 동안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 본교 직원과 교수들이 컨설턴트 David Agron 박사와 매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준비해 왔다. 내년 2월에 있을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고 학부 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ABHE에 가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학부과정은 규정에 따라 이미 본교 학생들에게 ABHE 가입학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미 미국의 주류신학교에 학생들이 진학하였고 올해 졸업생 중에도 여러 학생이 미국의 주류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또한 재학생들에게 정부의 학비 보조와 융자프로그램이 적용되어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보조로 학업을 받고 있다. 특히 새로이 신설되는 음악학과를 위하여 4월 29일과 5월 12일 양일간 본교 음악과 교수들이 모여서 음악학과의 목적과 커리큘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격 교육 센타 소식

"미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제공합니다" 라는 목적으로 2004년 가을학기에 시작한 본교 원격 교육센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학업에의 열정은 있으나 생활과 거리 상의 제한으로 학교 캠퍼스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교지 현장에서 배움의 필요를 느끼는 선교사들, 바쁜 삶 때문에 학교에 와서 수업할 수 없는 직장인들, 멀리 타주에서 학업하고 싶은 분들을 마음에 두고 진행되고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강의노트, 강의녹화 DVD, 인터넷을 사용한 융통성 있는 학습방법을 통해 학습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거주하는 35명을 포함, 아프리카, 인도, 터키 등 각 13개국에서 66명의 학생이 학업을 하고 있고 이 중 15명이 현지 사역 선교사이다.

학교 인가

원격 교육

학술 논문 발표 대회

지난 4 월 21 일에 한인 신학대학 협의회 주최로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제 2 회 학술논문발표대회가 열렸다. 남가주 지역 여러 신학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논문을 가지고 참여하였는데, 본교에서는 김덕호 학우와 부르스정 학우가 참가하여 둘 다 우수논문상과 함께 장학금을 받았다. 앞으로 본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여름 단기 선교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매년 여름 학생들의 선교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교회를 돕기 위하여 단기 선교를 간다. 올해는 임성진 교수 지도 하에 총 18 명의 학생이 2005 년 7 월 5 일부터 11 일까지 본교 동문이신 윤경호 목사가 시무하시는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로 단기선교를 떠날 예정으로 매주 준비모임을 갖고 있다. 올해는 교회의 예배당을 수리하는 건축사역과 콜로라도 지역 청소년 연합집회를 통한 청소년 사역 성인 연합찬양 집회를 총한 성인 사역을 할 예정이다.

2005 학년도 월드미션대학교 학위 수여식

오는 6 월 4 일 (토) 오후 1 시에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2005 년 학위 수여식이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올해로 14 회째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졸업생 학위과정을 보면 B.A 과정에 11 명, M.A.과정에 3 명, M.Div 과정에 4 명 등 총 18 명이 학위를 마치게 된다. 그 외에도 샌디에고 한인 연합장로교회를 12 년 동안 섬기시며 성장시키시고 현재 은퇴후 밀알 장로교회 동사목사로 섬기시는 홍춘만 목사께 명예 선교학 박사가 수여된다. 졸업식에서는 본교 부총장 John McKenna 박사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본교 음악과 교수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예전보다 한층 분위기 있는 졸업식이 될 전망이다. 졸업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강문정, 김덕호, 김박선미, 김연주, 김영애, 노광조, 이명욱, 이순자, 오광탁, 조경진, 최용석 (이상 학사); 박정일, 정부르스, 최선영 (이상 MA); 윤병완, 임양택, 이사무엘, 장시희 (이상 M.Div.); 홍춘만 목사 (명예 선교학박사)

집중영어프로그램 가을학기 개강

본교에서는 체계적 교과과정과 탁월한 강사진, 최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2005 년도 가을학기 집중영어 프로그램 학생모집에 들어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인가대학교로서 학교 자체 SEVIS I-20 를 발행함은 물론, 지원학생의 비자 및 유학상담을 학생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집중영어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 ESL 과정의 특징으로 ▲학습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소수 정예반 편성 ▲주정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 강사진 ▲기초부터 고급까지 6 단계로 분리된 체계적 교과과정 ▲컴퓨터실, 도서관, 스튜디오 등 최신 교육시설 ▲저렴한 학비 ▲대학진학 및 진로상담 ▲월드미션대학교 정규과목 이수가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어권을 대상으로 사역을 희망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권 사역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영어성경 (English Bible) ▲신학영어 (Theological English) ▲목회영어 (English for

Ministry) 같은 과목이 개설된다. 월드미션대학교 영어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월드미션대학교 (213-385-2322) 집중영어프로그램 담당자인 이금희 디렉터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교수 논문집 "말씀과 선교" 첫 발간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그 동안 교수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한 활동들을 정리하고 발표할 목적으로 교수논문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중 올해 학위수여식을 즈음하여 처음으로 교수 논문집을 발간한다. 본교의 사명선언서의 취지에 맞추어 확실한 말씀의 기초 위에 바람직한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 논문집의 이름을 "말씀과 선교"로 정하였고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논문집을 통하여 본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매년 발간되는 월드미션 헤럴드는 올해부터 축소된 형식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칼럼 방송

본교에서는 본교가 위치한 미주 한인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기고 본교를 미주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 복음방송(1190)을 통하여 월드미션 칼럼방송을 시작하였다. 매주 수요일 9:40 부터 5 분간 영혼의 샘터 시간에 고정적으로 본교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칼럼을 방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석환 교수, 손진락 교수, 박자슈아 교수, 변명혜 교수, 신선묵 교수의 칼럼이 방송되었다. 이 컬럼을 통하여 미주 사회에 월드미션대학교의 훌륭한 교수진이 더욱 알려지고 있다.

설교　　이기영 학우 (M.Div.)

우리 삶의 목적

[본문] 시편 24:1: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얼마 전 다운타운에 나갔다가 언덕길에서 큰 덤프트럭이 막 내려오면서 어떤 승용차를 들이받고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영화 촬영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른 형태의 영화 촬영 현장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촬영 현장에는 여러 대의 콘테이너 차량이 함께 있는데 그곳에는 각종 장비 및 소품, 의상 등 영화 촬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고 배우와 촬영 진들은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촬영이 끝나면 되돌려 주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은 또 다른 영화를 위하여 사용되어 지곤 합니다.

나는 이러한 영화 촬영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촬영 현장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각자의 배역을 맡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소품을 사용하다가 각자 맡은 역이 끝나면 그 사용하던 모든 것을 이세상에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다시 돌려 주게 됩니다. 심지어 이 육체도 다시 땅으로 돌아가 분해되어 이 몸체를 이루고 있는 수 많은 원소는 언젠가는 동 식물의 에너지로 사용될 것이며 수분의 일부는 땅에 남아 있거나 하늘로 올라가 구름과 비가 되어 또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느 하나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 할 수 있으며 다스리고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이 (시편 24 장 1 절 말씀을 통하여)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 이라고 고백하였고 역대상 29 장 11 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 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 보십시오. 이 건물도 이 마이크도 심지어는 여러분과 옆의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어린아이, 교인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두에게 주께 대하듯이 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 장 23 절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가, 내 가족이, 내 교인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학생들과 교인들을 사랑하며 돌봐 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좌절에 빠지거나 화를 내어 자신을 학대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과 살인은 더욱 안됩니다. 얼마전 안락사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따져가며 남의 목숨을 끊어야 합니까?

화제의 주인공 테리는 (죽기 전 어느 기자가 부모에게 딸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믿느냐는 질문에 아직 죽지 않았으니 분명히 살아 있는 것이라며 음식 공급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안락사 요청과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 일체 음식을 제공 받지 못한 채 결국 13 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과 인간의 뜻이 담겨진 바로 인본주의의 결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락사의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그러한 입장에서 인간이 존중되어야지 결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물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함부로 다루거나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의 물과 휴지도 아껴 써야 하는 것이며 내 것이 아니라고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내 것이라고 먹던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일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얻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이름 남기기를 좋아 합니다. 물론 이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쓰여야지 결코 나의 이름만 높여져서는 하나님 곁에서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돈을 주었더니 그 비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선물을 돌렸다고 가정합시다. 선물을 다 돌린 후에 비서가 사장과 같이 있는데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비서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면 그 비서가 사장 곁에 제대로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얘기에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결국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다윗이 영광을 왕에게 돌리지 않아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곁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를 들을 때 마다 그가 하나님 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 구원의 길을 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 들고 나가도록 명령 하셨고 이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내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는 분해되어 없어질 이 몸, 헌혈이나 골수 기증은 물론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불려 갈 때, 모든 장기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증 하는 것도 귀한 일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 한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소중히 대하여야 하며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할 것은 물론,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김덕호 (M.Div.)

그리스도인의 소망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린다. 특히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승천 후 복음 사역에 앞장 선 일꾼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산 소망'으로 표현할 만큼 확실한 소망을 품은 자였다. 그가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서이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교회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나 바로 이후에 쓴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적대적인 낯선 나라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을 위해 쓰인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박해가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그들이 주장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들을 조심스럽게 제시하였다. 즉,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잘 견디도록 격려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고통 받게 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내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아예 포기하던가, 아니면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생각해보자.

1.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 장 3 절에서 말한 '산 소망'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산(living)'이란 용어는 베드로가 애용하는 단어로서 그 용례는 본서신의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된다(1:23; 2:4). 아마도 이러한 강력한 표현들은 당시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 소망'이라고 표현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에서 보면, 산 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산'이란 계속해서 존속하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결국 '산 소망'이란 결코 쇠하거나 철회될 수 없는 살아있고, 마침내 완전히 성취되고야 말 그런 생동하는 소망을 가리킨다. 이 소망은 마침내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죽은 소망과 명확히 대비된다.

특히 이 산 소망은 4 절에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그 대상에 있어서나 그 결과에 있어서 산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산 소망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받아들이고 능히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제공하시는 주께서 바로 이러한 산 소망의 뿌리이기에 우리 인간의 기쁨과 슬픔, 생(生)과 사(死)의 굴곡이 끝없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산 소망은 결코 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든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둔 구원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순종의 원리가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앞에 놓여있는 행복을 생각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기쁨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실 위주의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것이다. 영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인 것이다.

2.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

베드로는 고난 받게 될 성도들을 위해 위로와 함께 소망을 가르쳐 주었다. 이 소망은 곧 고난을 이겨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만든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고난 속에서 이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이 목적에 대해 '영혼의 구원'이라고 1 장 9 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롬 5:3-4).

우리는 모진 고통과 큰 슬픔을 당면했을 때 설명이 필요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라도 당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새로운 계시이다. 때때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큰 충격이 필요하게 된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장차 다가올 성도들을 향한 고난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좌절하고 원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이라 불리는 베드로서를 쓰게 된다. 고난 속에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또한 고통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지키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실 때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벧전 1:21). 고난속에서의 인내함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이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

3. 소망과 갈망

소망이란 무엇인가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얘기할 때 유념할 것이 있다. 소망의 토대는 갈망에 있는데, 소망은 갈망과 다르다는 것이다. 갈망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가능한 것, 합리적인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만을 소망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소망을 강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대상이 올바르고 선한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즉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의 사려 깊은 경험에 의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신령하고도 영원한 성품에 관한 축복들을 배우기 시작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귐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우리는 소원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죄한 것들이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갈망하는 데에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데, 그 모든 필요와 감정들도 참되고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절대적인 힘을 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합당한 정도로 갈망하고 구해야 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5)'고 권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 소망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은 '거룩함'의 옷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별되지 못하면 소망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장차 썩어질 것들을 갈망하게 될 뿐이다.

4.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대상

소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라는 어느 정도 주목할 만한 말씀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충만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인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음의 세 성경구절에서 지적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벧전 1:4)',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7)',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9)'. '은혜'는 '영광'과 대립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은혜는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명칭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이다. 그것은 점진적이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함 속에 있는 완전한 구원 자체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의 장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오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소망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소망은 영광스러운 천년왕국도 아니다. 천년왕국은 때가 되면 올 것이며, 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낮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의인, 바로 주 예수님의 친히 돌아오시는 재림인 것이다. 오시는 분은 그분을 위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다. 그 하늘의 신랑은 신부를 위해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그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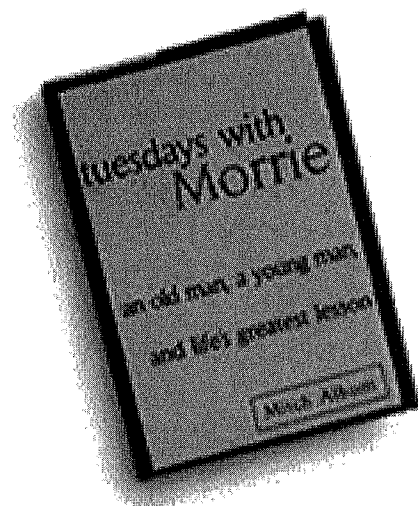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 거짓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 잘못되고 거짓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가 말한 진정으로 선한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있는가?

비록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소망의 서신을 썼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 말한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도, 장차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까지 밀려온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더욱 마음 깊이 새겨 지켜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 무엇보다 오늘날엔 예수님을 믿는 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시절처럼 고난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신적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도 수반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초대교인들보다 물질문명이 발달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더 필요하다. 거짓된 소망, 썩어질 소망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에, 우리의 소망도 항상 살아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말씀을 기초로 한 소망이야 말로 진정으로 산 소망이라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독후감 임중혁 (B.A.)

Tuesdays with Morrie: The Fourth Tuesday-Death

Most of us do not have a long discussion over egg salad sandwiches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as Mitch Albom tells us. It goes even further for me, because I have never discussed with anybody else about the meaning of death in anyway. I never thought about it in any depth. Morrie told Mitch that, when he learns how to die, he will learn how to live. And, after thinking for a while about this, I have come to realize how right he is in saying this. Although I have never thought seriously about my own death, I have imagined the death of other people. I lived my life as if nothing bad could ever happen to me. I put my seatbelt on whenever I went inside my car, not because I thought it is possible I will get into an accident, but more out of habit. But, Morrie is right when he says that death can happen anywhere at any time and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it every morning we get up. I did what he said by meditating on all the good things of life and how all these things can disappear at any moment. As a result, I felt my life to be more valuable. Every little moment became more enriching and precious to me. Once I realized that there is a limit to life, life was more precious to me, and I felt the need to do more, to take in all of life as much as possible in my short stay on earth.

Many people do not even have enough time to drink coffee in the morning to get to their office on time for work. Everyday and every week they have to worry about their bills, credit payments, budget, and whether all these can be paid on time. People just run out of

breath just doing this instead of living and being. Morrie tells us the value of living, of being. He tells us the importance of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loved ones, with friends and family. He values the time people spend doing good to each other. Morrie says that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should value more in our lives. Money can get us many things and bring us a lot of success and fortune, but it will never buy us happiness. For happiness can exist only between people, between one and the rest of the people out there. And we can be happy if we just change our attitude and focus on what is most valuable in life.

After reading what Mitch wrote about Morrie, I have come to view death differently. I have always tended to think that death is an end. Although I am a Christian and believe in an afterlife, I was always afraid of death, like many other people out there. But, Morrie made me view death as just a next step of life. Death and life are inseparable, and one can not be understood without the other. I used to be afraid of death and thought it to be bad and something everyone would try to avoid if they were able to. But, why do we fear death? Why should we really, if we do not know what is on the other side? Nobody ever came back from death to life to tell us about what it is or how it felt to be dead. It is somewhat irrational, since there are many other things that we know of in this life that causes us fear. So, as Morrie says, the rational way to approach death is to approach it calmly and peacefully. When death comes to us, it will come to us.

I have tried to look at the world through Morrie's eyes. I tried to imagine myself having LouGehrig's Disease and having only a short time to live. And, like Morrie, I looked outside the window of my room at a tree for some time. I felt what Morrie felt in seeing things through different eyes. Everything seemed more alive and beautiful. I had thought many things like this tree in front of my room to be a distraction. I never bothered to care about. But, I found meaning in the tree's existence. It exists just like me. It has life and reaches ever higher to feel the power of the sun's rays. The tree wants to fulfill its potential as a tree and, as Morrie would say, not just to exist but to be.

Death can motivate us to live better and appreciate life more. And, I know that now is the time I must start from scratch and rethink about death. We do not know how long we have time for us. So we have to live as if this day is going to be our last. As Morrie says, we should have a bird on our shoulders and everyday, talk to the bird; Is today the day? Am I ready? Am I being the person I want to be? Is it today?

Many years ago, someone said to me that 'life is like a letter, even though death will come to us some day, we shall write our letter beautifully'.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강모세 / 금재연 / 김대성/ 김범수 / 김영만 / 김영주 / 김인희 / 김재권 / 김정기 / 김진광 / 김창국 / 김청익 / 김해룡 / 박제임스 / 방연옥 / 배기복 / 백형권 / 성광수 / 신동수 / 신병모 / 신재권 / 신재철 / 안광석 / 안의식 / 양근수 / 엄경자 / 오상훈 / 유수잔 / 윤성환 / 윤정림 / 윤정임 / 이효신 / 이미옥 / 이재현 / 이한길 / 이형규 / 임승천 / 임승표 / 임진수 / 장코스모스 / 정봉모 / 정중섭 / 조용직 / 조정현 / 진성백 / 최근홍 / 최선영 / 최종원 / 최호춘 / 한긍리 / 한동열 / 한승수 / 한제임스 / 한평우 / 윤태중

기도후원회

강길선 / 강선주 / 강순정 / 강승묵 / 강애순 / 강영혜 / 강정희 / 강종구 / 강준민 / 강지미 / 강크리스틴 / 강토미 / 강형묵 / 계옥주 / 고기동 / 고정희 / 고주현 / 곽광례 / 곽병재 / 구경훈 / 구연호 / 구자원 / 구혜경 / 구혜성 / 국배환 / 권문자 / 권순애 / 권옥엽 / 권인순 / 금남이 / 금재연 / 길태승 / 길태옥 / 김수 / 김갑선 / 김경숙 / 김경애 / 김경이 / 김경자 / 김경호 / 김금동 / 김금례 / 김금자 / 김기옥 / 김기자 / 김남숙 / 김대영 / 김동석 / 김동진 / 김롯 / 김명은 / 김미정 / 김병호/ 김보환 / 김복선/ 김복순 / 김산드라 / 김상중 / 김성숙 / 김성호 / 김세민 / 김소리 / 김스티브 / 김아벨 / 김안나 / 김애순 / 김영숙 / 김영순 / 김영애 / 김영원/ 김영의 / 김영종 / 김옥림 / 김옥순 / 김옥자 / 김옥저 / 김용식 / 김우월 / 김유경 / 김윤택 / 김은희 / 김인애 / 김재순/ 김재용 / 김재한 / 김정화 / 김제임스/ 김종길 / 김종숙 / 김지윤 / 김진영 / 김추자 / 김충일 / 김학송 / 김한상 / 김한진 / 김햴렌 / 김현길 / 김현길 / 김현주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자 / 김홍선 / 김홍식 / 김화실 / 김희라 / 남기안 / 남만식 / 남상일 / 남춘녀 / 노애린 / 노재희 / 다이아다오동필녀 / 도은주 / 명쟌 / 문지민 / 박경희 / 박명희 / 박미숙 / 박미진 / 박성렬 / 박송학 / 박수복 / 박수형 / 박순태 / 박연숙 / 박영부 / 박영환 / 박옥 / 박옥희/ 박유니스 / 박은세 / 박재옥 / 박정희 / 박정희 / 박진선 / 박종화 / 박캐롤 / 박현주 / 박환 / 배경애 / 배성은 / 배혜영 / 백글로리아 / 백기돈 / 백봉님 / 백운각 / 백원국 / 변린다 / 변명혜 / 변성요 / 서동민 / 서레베카 / 성광수 / 성병현 / 손지은 / 손창엽 / 송대순 / 송숙희 / 송윤희 / 송제이슨 / 신동희 / 신메리 / 신부남 / 신옥주 / 신요한 / 신용익 / 신정민 / 신정희 / 신진희 / 신태문 / 심옥선 / 심일명 / 심혜연 / 안성실 / 안수연/ 안수현 / 안앤토니 / 안옥순 / 안희숙 / 양순복 / 양순옥 / 양승달 / 양아경 / 양영옥 / 양지훈 / 엄경훈 / 엄옥엽 / 엄종은 / 오경애 / 오광찬 / 오다이아나 / 오승흥,위종숙 / 오영순 / 오인숙 / 오준용 / 우유리 / 원인혜 / 원재수 / 유문식 / 유상렬 / 유순의 / 유영숙 / 유정숙 / 유킴벌리 / 유한성 / 유환성 / 유현숙 / 유혜원 / 유희진 / 윤광호 / 윤준 / 윤미선 / 윤미선 / 윤미진 / 윤상욱 / 윤상자 / 윤선영 / 윤수잔 / 윤응숙 / 윤창섭 / 윤춘자 / 윤혜경 / 윤희석 / 윤희원 / 이경순 / 이경원 / 이경혜 / 이광열 / 이귀란 / 이규현 / 이그레이스 / 이금춘 / 이금희 / 이기남 / 이마리아 / 이명순 / 이명일 / 이묘한 / 이미옥 / 이범연 / 이병걸 / 이복선 / 이복수 / 이복순 / 이부연 / 이사무엘 / 이상진 / 이상헌 / 이선례 / 이선자 / 이성원 / 이선양 / 이순만 / 이순섭 / 이승기 / 이승래 / 이승연 / 이엔젤 / 이연순 / 이영애 / 이옥선 / 이요한 / 이은예 / 이인숙 / 이장연 / 이재순 / 이정민 / 이정숙 / 이정순 / 이정원 / 이정애 / 이정희 / 이제니 / 이종만 / 이종진 / 이종찬 / 이종현 / 이주연 / 이준상 / 이진선 / 이찬봉 /이태길 / 이한길 / 이향도 / 이행도 / 이혜숙 / 이홍일 / 이황윤 /이효신 / 임경숙 / 임동선 /임성진,조영미 / 임성형 / 임은점 / 임은화 / 임재순 / 임정자 / 장승자 / 장영애 / 장정숙 /

장코스모스 / 전영규 / 전영식 / 전윤진 / 전혜경 / 정경구 / 정광자 / 정데보라 / 정미경 / 정선희 / 정성길 / 정순구 / 정영옥 / 정유정 / 정인숙 / 정현숙 / 정희성 / 조경호 / 조명기/ 조명희 / 조상천 / 조석환 / 조아나 / 조영미 / 조진호 / 주화순 / 진강일 / 진예경 / 천영민 / 천효수 / 최주희 / 최남숙 / 최미경 / 최미선 / 최상건 / 최영은 / 최의송 / 최재호 / 최혜산 / 최희숙 / 한규한 / 한동희 / 한만혜 / 한명숙 / 한미경 / 한아나 / 한영희 / 한혜숙 / 함재목 / 허 명 / 현은석 / 홍조슈아 / 홍탁영 / 홍택영 / 홍명주 / 홍병희 / 홍수현 / 홍옥선 / 홍은옥 / 홍재은 / 홍정남 / 홍정혜 / 홍주희 / 황미자 / 황재룡 / 황현주 / A+Garment Inc. / Anthony An / Bok Soo Yi / Byun Seong Ryong / Byun Seong Yon / Chang, Kyong Koo / Cho Seung Hee / Choi, Sally / Chung Soon Koo / David Agron / Do Eun Joo / Dr. Andrew Hyun / Fumbin foe Inc / Im Sung Hyung / James Kim / Jin Hun Kong / Judy's Accessories / Jun Yong Kyng / Jung Mi Kyong / Kang, Christin / Kang Jimmy / Kang Tormmy / Kang Yun A / Kap Sun Ro / Kim Steve / Kim Sue / Kim Byong Ho / Kim Dong Jin / Kim Kwang Hoon / Kim Ok Lim / Kim Yong Jong / Kim Yong Sik / Ko Gwi Dong / kook Hae Kyun / Kum Jae Yun / Lee Angels / Lee Bum yon / Lee Chang Hyu / Lee Chang Yon / Lee Hae Sook / Lee Han Gil / Lee Jenny / Lee Jin Sun / Lee Jung Soon / Lee Mi Ok / Lee Myo Hwan / Lee Sang jin / Lim Hyuk Sung / Living water sports wear / Oh Jun Yong / Oh Kyung Ae / Oh Hup / OMC Parco USA / Par Ok / Park Eunice / Park Mi Sook / Park Soon Tae / Sam Y Oh / Sams Sauci / Sang IL Nam / Shim Hye Yun / Shim IL Myung / Shin Ok Joo / Sohn Ji Eun / Song Jason / Um Jong Eun / Unit / Violet Kim / Woo Yuni / Yeoldosilgua / Yoon Mi Sun / Yu Kim Berly

동문회 후원

김창국 / 이명희

연합회 후원

중부 OMC (김진광) / 알라스카 OMC (이태종) / 시애틀 OMC (이중용) / 오레곤 OMC (이상호) / 다우니 OMC (남종성) / 유타 OMC (손주영) / 로간 OMC (조항목) / 로마한인교회 (한평우) /뷔츠브룩한인교회 (강성구) / 회복의 교회 (이사무엘) / 한미중앙교회 (김건태) / 윌셔선교교회 (이재현) / 세계복음선교연합교회